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새 살이 깨끗하게 돈았어요

저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가슴 밑으로는 감각이 없는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봄 시설 선생님의 도움으로 머리를 감다가, 물이 갑자기 뜨거워진 걸 모르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선생님이 허벅지가 빨갛게 됐다고 찬물로 식혀주셨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상 부위가 넓고 정도가 깊다며 2달 정도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해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 실비 보험도 없어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니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사회사업팀의 도움을 받아 아산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좋은 약품과 치료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서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약품을 써서 화상 부위에 깨끗하게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박희선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어린 딸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추락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얻고 희귀 난치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신의 통증이 심해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차단술을 받고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산재급여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딸과 단 둘이 사는 조촐한 살림이지만 병원비와 약값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이미 산재급여를 받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주택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집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 같았습니다. 우선 있는 돈을 다 모아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 대출을 알아봤는데, 지자체의 지원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막하던 차에 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이 아산재단에 지원을 신청해주셨고, 아산재단에서 빠르게 보증금 지원을 결정해주셔서 한 달 만에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재단 덕택으로 전에 살던 데보다 좀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린 딸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후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영진 드림

